



네 번째 주제_나의 대학 생활과 진로

대학은 서둘지만 도전하며 성장하는 곳



글 차주엽

경북대 환경공학과 1학년
cjuy777@gmail.com



일탈을 일삼다가 대안학교에 진학했다. 스스로 세상의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학교 밖에서 방황하며 도약하기 위해 힘썼고, 여러 경험 끝에 환경공학에 맞닿은 삶을 살고 있다. 공학도의 시선으로, 때로는 환경 운동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

매 순간 흥미진진한 ‘환경공학 입문’

고2까지만 해도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대학이 취업 수단으로 변질된 현실에 깊은 유감을 느끼며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내뱉고는 했다. 한편으로는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수준 높은 논문을 읽고 의문을 해결하고 싶었고, 실제로 연구에 몰두하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며 호기심을 확장해나가고 싶었다. 모순이 섞인 열망은 대입의 원동력이 되었다.

대학에 와보니 확실히 달랐다. 수업은 조금 불친절했지만 그동안 알고 있던 개념도 색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은 학문의 일부였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학문을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전공 공부는 너무나 즐거웠다. 공대 특성상 수학, 물리, 화학 위주였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비슷한 부분도 많았다. 그중 ‘환경공학 입문’은 매 순간 흥미로웠다. 폐기물 처리, 수질 개선 같은 전통적인 환경공학부터 신재생 에너지처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야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 교수님이 최신 연구 동향을 언급하실 때마다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학문의 지평이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라 설레었다.

친구들과 함께 도전해볼 기회도 덩달아 늘어났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 프로젝트나 전국 단위 공모전에 참여했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작아 아쉬웠다. 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공모전, 국가 지원 사업, 장학 사업 등은 훨씬 폭이 넓었고 상금이나 지원금도 규모가 큰 편이라 새삼 내가 진짜 성인이 됐음을 느낄 수 있었다.

참가자의 수준 역시 높았다. 환경 서포터즈에 지원하기 위해 국가 기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사업을 조사하고 다양한 국내 사례를 탐색하며 홍보 방안을 구상했지만 아쉽게도 떨어졌다. 아직 1학년인 데다 전공 이해도가 낮고 대외 활동 경험도 전무해 합격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예전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기에 여러 시위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보기도 했다. 현장에서 직접 듣는 여러 사람의 의견은 전공과도 맞닿아 있었다. 이들이 토로하는 환경 문제를 접하면서 환경공학도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이론으로 배우는 지식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넓은 세상에 뛰어들기 위해 창업 준비중

요즘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공과 연관성이 깊은 분야는 아니지만 지금 까지 쌓아온 경험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협력하며 더 넓은 세상에 뛰어들 계획이다. 환경공학이라는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학문의 융합이 필수라는 사실을 대학 수업과 대외 활동을 통해 몸소 깨달았다. 이런 접근은 때로 예상치 못한 혁신을 이끌어낸다니 기대가 크다.

한때 편견이 있었지만 실제로 대학에 와서 배우고 경험한 것은 기대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아직은 조금 서툴고 실수도 많지만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호

서포터즈 지원을 위해 작성한 회의록과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대본. 아쉽게 불합격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면접
24일(금) 11:50 - 12:10 온라인 진행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1. **팀 소개(약 1분) or 자기역할 소개**

a. 결성 개요

- 대학교 입학 후 저희 넷은 같이 학교 생활을 하며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바이에서 흥수가 났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이를 주제로 환경과 관련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모두 환경 파괴와 관련한 문제들을 생각해 갖고 있으면 단지 성적에 맞춰 대학을 은 것이 아닌 환경 보호와 기술 개발에 이바지 하기 위해 환경공학이라는 전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청춘 멤버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생겼고 지금의 청춘 멤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b. 지원 동기

- 이렇게 모인 저희는 환경 보호와 기술에 관련된 다양한 대외활동을 알아보며 서로에게 정보들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모집하는 에코프렌즈 서포터즈에 대해 알게 되었고 환경 보호와 관련 기술개발에 관심이 있는 저희에게 알맞고 뜻깊은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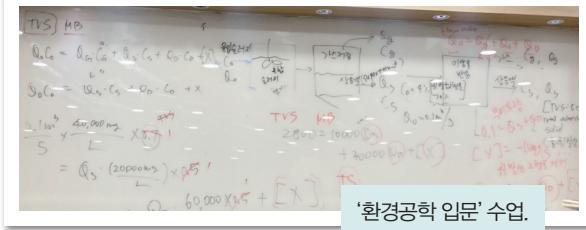
c. 각자 학과와 맡은 이유

- **리더(소회)** 평소 저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들에 있어 리더 역할을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을 직접 이끌고 일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익숙하고 친구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 의견 조정에 유리하여 리더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눈치와 센스가 좋다는 말은 평소에 많이 들었으며 리더십 능력으로 팀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다 판단하여 리더가 되었습니다!

- **기획(주연)** 이전부터 학교 축제, 동아리 부스와 같은 여러 활동을 기획하고 이를 성취하는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성취감을 바탕으로 더불 수 있는 디자인 팀이 광범위하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렀습니다. 본인 아니라 많은 활동으로부터 깨달은 기획이라는 역할의 책임과 무게를 잘 알게 되기 위해 기획 역할을 맡았습니다.

- **크리에이티브(세션)**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창작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 했습니다. 이것이 이어져 지금까지도 저의 취미는 그림 그리기와 디자인이고 최근에는 영상 편집으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팀원 중 가장 많은 디자인 틀을 다룰 수 있기에 편집 및 디자인이 주 역할인 크리에이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 **인플루언서(성우)** 세세하게 강점을 살리려는 저희 팀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희 팀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나 정보를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개시한 글들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 소사한 해시태그들이나 키워드들을 한 번 더 짚어하는 데에 세세함이 크게 작용한다는



환경 문제는 중요한 정치 의제이기에 시위에 참여해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심을 확장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대학 생활임을 깨달았다. 앞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학문 탐구와 사회 실천이 함께 어우러지는 길을 걸어 가고 싶다. 오늘도 조금씩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모두를 응원한다. ↪